

개정 노조법이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노사상생을 촉진하여 노동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1.7.(수) 서울경제, “韓 노란봉투법 F학점...AI시대 역주행 입법 멈춰야” 기사 관련

2. 설명 내용

- 개정 노동조합법이 노사갈등과 극단적 투쟁을 초래하고,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온당하지 않음
 - 그간 우리나라는 원청의 외주화 확대 및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 되어왔음
 - － 그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동자의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이 됨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,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어 왔음
- 개정 노동조합법은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
 -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와 원하청 상생에 기여하게 될 것임
- 아울러 EU는 한-EU FTA ‘무역과 지속가능 발전’ 이행위원회 회의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“노조법 개정을 포함해 결사의 자유 강화를 위한 한국의 최근 발전을 환영하며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”라고 언급하는 등 노동조합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음

-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및 상생교섭모델 구축·확산 등 현장지원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안착을 지원하는 한편
 - 일터 민주주의 실현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기 위해 ‘노동시장 격차해소’, ‘노동있는 산업 대전환’, ‘노동이 존중받는 일터’를 중점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음

담당 부서	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	책임자	과 장	서명석 (044-202-7611)
		담 당	서기관	유현경 (044-202-7607)

